



#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 보도내용 >

- 2026.6.30.(화) 광주일보는 「청와대·정부, 통합특별시에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추가 지원금도」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첫 당정청 협의회 열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정부가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이 지역에 이양하고, 약속된 20조원과 별도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 “지원되는 20조원도 최근 제기된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을 만들 예정,” “정부와 청와대는 20조원 지원과 관련해서 ‘지방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반도체 투자와 20조원 뿐 아니라 ‘추가 지원되는 것도 많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 정부 입장 >

- 아직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실 지방재정팀	책임자	팀 장	박민정 (044-214-3190)
		담당자	사무관	고병국 (kobk22@korea.kr)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담당자	서기관	강민철 (kmc0608@korea.kr)